

□ 캠퍼스 들여다보기

120% 공간 활용하기

김정후

(건축공학 석사3기)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와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울타리라고 한다면 울타리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캠퍼스란 이러한 의미에서 캠퍼스 환경(campus environment)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며, 이것은 물리적인 것(built environment)과 더불어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결국 캠퍼스는 건물, 녹지, 외부공간, 길 등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질서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여기서 형성된 다양한 공간들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캠퍼스는 어떠한지 현실속으로 들어가 보자.

1. 서울캠퍼스

서울 캠퍼스는 1949년 개교 이래 1951년 1차 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해 고향산 기슭에 30여만평 부지에 현 캠퍼스의 대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마스터

플랜상에서 보면 동문-교시-탑-본관으로 이루어진 대학교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타 단체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각각의 건물이 독립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대학교는 조경에 의해서 아름다운 가로를 형성하고 있으나 적절한 휴식 공간의 부재로 단순한 통로 이상의 역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일하게 만들어진 것은 진입로 좌측의 외부 휴식 공간도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은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캠브리지의 각각의 학부 건물들은 주도로를 축으로 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독립적 중정과 진입로, 산책로들이 개성 있게 배치됨으로써 개별적 아이덴티티(Identity)와 더불어 전체 구성에 있어서도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석조로 이루어진 본관 건물과 그 앞의 분수 광장은 회기 캠퍼스의 위용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지만 사진만을 찍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적절한 외부 공간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되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 공공건물들에서도 집회를 위한 광장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측

면에서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면적 5,400평의 청근 콘크리트와 석조로 이루어진 중앙도서관을 어떤 수식이 필요없이 경희의 자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열람실이 원형으로 계획되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며, 열람실 상부가 오픈됨으로써 위층과의 시각적 차단이 불가능하여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단과대학을 살펴보자. 먼저 정경대의 경우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다른 면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건물 앞에 마련된 잔디밭과 벤치는 건물의 복도와 마루보고 있기 때문에 휴식 공간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현재의 잔디밭은 경사가 심하고 학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범대의 경우도 조금 낫기는 하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양옆에 만들어진 휴식 공간은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으며 건물 앞의 마당은 주차장화되어 있다.

이것은 거의 동일한 공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리대 앞의 휴식 공간이 대단히 활성화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이것은 조그만 배려에 의해서 기존의 공간들이 충분히 학생

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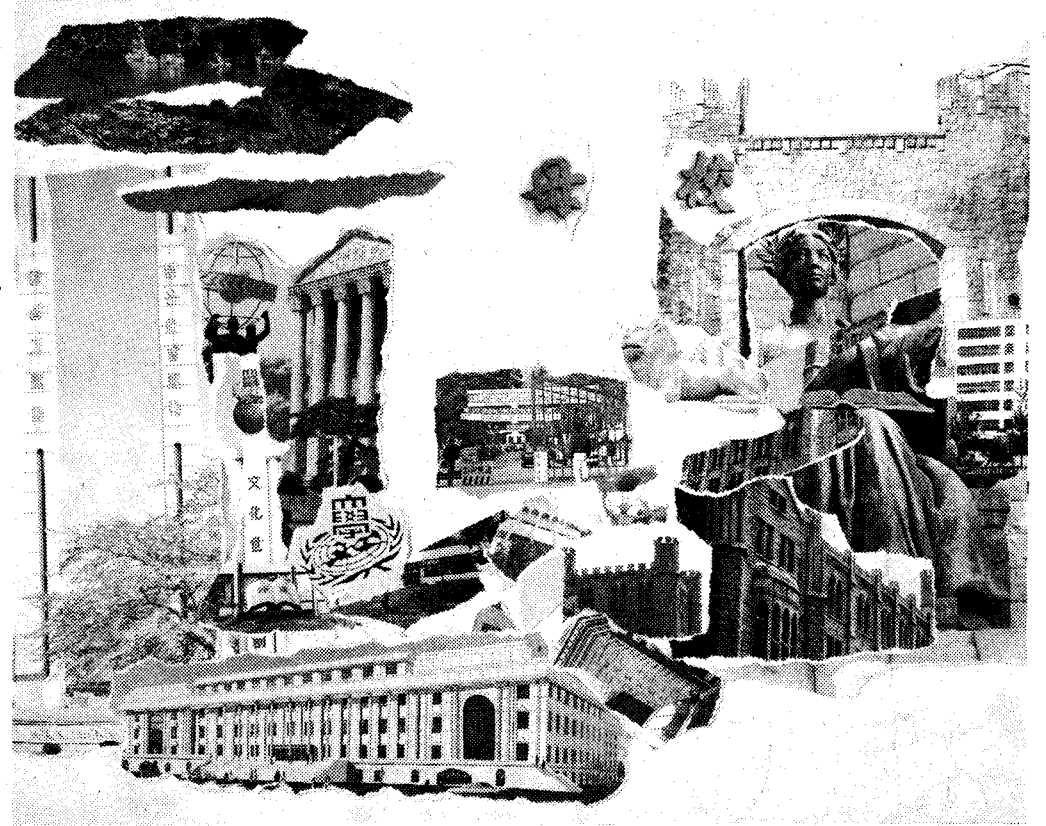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외부 공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곳곳에 만들어진 의도된 공간들-문리대 서관 앞 파고라, 크라운 콘서트홀 앞의 녹지공간, 한의대와 법대가 공유하고 있는 잔디광장 등-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천극장, 대운동장, 크라운 콘서트홀 등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결국 학생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리적 차원에서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학교 서울·수원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각각의 건물들.

2. 수원캠퍼스

수원캠퍼스는 1979년 신갈 호수 주변 50여만평의 부지에 계획되어졌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



학생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 필요 진정한 상아탑 역할 수행되어야

서울 캠퍼스 도면에서 녹색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조경이란 건조 환경의 부차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여기에

캠퍼스는 초기 계획시에 후문으로 계획되었던 곳이 현재 정문의 역할을 하므로써 당연히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것은 상당 부분 마스터 플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대학로는 그

근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차량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정문 앞의 운동장은 여타의 캠퍼스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황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재는 본관과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그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상아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전면의 광장은 지금보다 좀더 치밀하게 학생들의 휴식과 토론의 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도서관의 거대한 내부 홀은 많은 공간들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규모에 비하여 내부 휴식 공간이 너무나 웅장하다고 생각된다.

공과대학의 경우 수원캠퍼스의 1호관으로써 적어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전면의 잔디광장은 모든 행사가 이 곳에서 치러질 정도로 활성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서울 캠퍼스의 잔디 광장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에 학생식당이 있던 위치에 기숙사가 들어섬으로써 공대 전면에서 저녁 노을을 감상하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또한 공대와 외대를 연결하는 길의 경우 보행로로써 굉장히 좋은 길이었으나 현재는 차량 중심의 일방통행로로 사용됨으로써 아쉬움을 갖게 한다.

외대 주변의 파고라와 잔디밭은 비교적 좋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면의 마당은 외대 학생들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건물의 경우 원형의 형태를 취

하고 있는데 복도가 바깥쪽으로 나고 강의실이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면에서 대단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대와 사회과학대, 자연대 등은 비슷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나 전면의 마당이 모두 주차장으로 이용됨으로써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자연대의 경우 특성상 공대와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회관의 경우 동아리 활동, 복지시설 등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 캠퍼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는 아직도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넓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며, 이것은 현재 캠퍼스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변화하고 있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수원캠퍼스에는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앞으로의 방향

경희대학교의 캠퍼스는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단점을 주로 살펴본 것은 캠퍼스 공간이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의 모

색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비판적 관점에서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양 캠퍼스에 조성되어 있는 광장들이 좀 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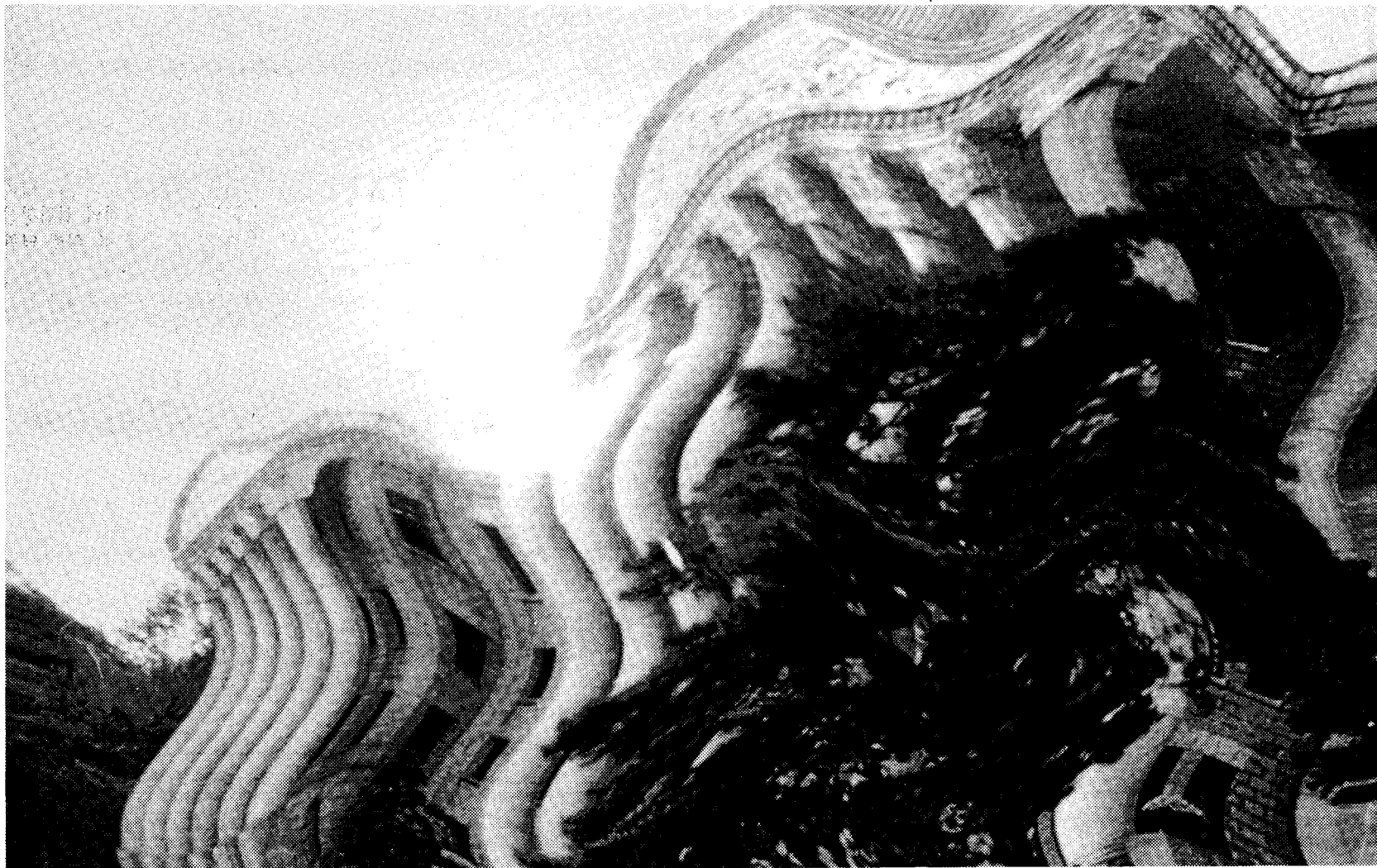
둘째로, 실제로 휴식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공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충분한 협의 통하여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들이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이다.

넷째로, 서울 캠퍼스의 경우, 수원 캠퍼스에 비해 새로운 오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옥상정원(휴식 공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며, 수원캠퍼스의 경우 반대로 조경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체 건물들이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건물외관과 외부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공간들이 하나의 주공간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점진적 계획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무시되어 왔으나 장애자들을 위한 배려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 캠퍼스란 학교와 학생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경희의 캠퍼스,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한하다. 경희대학이 진정한 상아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관 건물을 그래픽 작업으로 이미지를 변형해 보았다

〈컴퓨터그래픽: 한승오 편집위원〉

□ 공간 불만 설문조사

가장 부수고 싶은 공간 ‘혈떡고개’

대학주보 창간 42주년 기념의 한 기획으로 실시된 양 캠퍼스 공간에 관한 설문 조사는 경희 사자들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캠퍼스와 잘 정돈된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그간 조경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온 학교 정경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생들의 휴식공간의 절대부족과 있는 곳마저 위치의 부적절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학생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진심도는 학교 전체 공간의 만족도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역사가 짧은 수원 캠퍼스의 경우는 서울 보다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로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수원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캠퍼스에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는 양 캠퍼스 모두 신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불링장, 수영장, 당구장, 테마카페, 길거리 농구대 등을 들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고향산에 전망대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나와 아름다운

학교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수원 캠퍼스는 서울과 비교해 ‘노천 극장’과 ‘패스트 푸드점’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부족한 학내 문화 및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캠퍼스는 협소한 공간으로 생기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반영하여 ‘주차빌딩’이 필요한 건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는 양캠퍼스 모두 ‘혈떡고개’로 중심 활동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당신 손에 콘크리트를 부술 해머가 있다면 어디로 달려가고 싶나?’라는 질문에 양캠퍼스 모두 ‘혈떡 고개’를 많은 학생이 답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규모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작고 초라한 교문도 고치고 싶은 구조물로 양캠퍼스 똑같이 지적되었다. 특이한 것으로는 수원의 학생회관 옆의 ‘홍가네 집’이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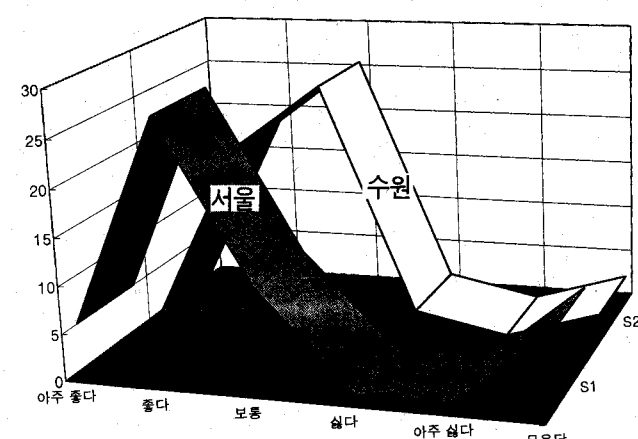
‘당신에게 페인트와 붓을 주었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그려 넣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 수원 모두 각 건물의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답한 것이 많으며, ‘단체건물의 외벽을 다시 칠하겠다’는 의견도 나와, 단체건물은 회색빛 건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경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문리대 벽화가 나오기도 해 변해가는 학생들의 세태를 반영하기도 했다. 정문 앞 도로에 학교마크를 그려넣자는 참신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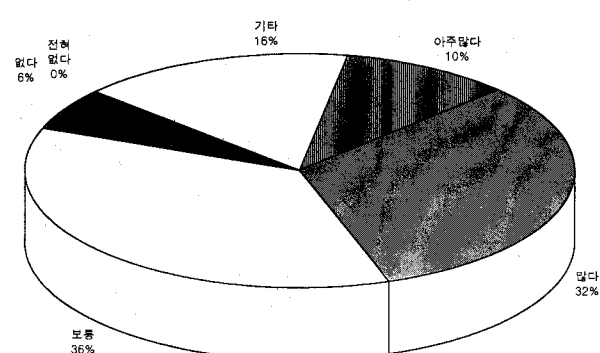
기존의 캠퍼스 안의 공간을 변형하여 만들고 싶은 놀이공간으로는 ‘혈떡고개에서 선동호까지 눈썰매장을 만들자’는 황당한 의견과 캠퍼스내를 초록색으로 덮은 나무와 춘향과 같은 미인이 많은 교내 사정을 고려하여 ‘나무에 그네를 매달자’는 흥미로운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

(문화부)

깨끗한 학교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서울 공간 불만도



수원 공간 불만도

